

# 한국 민요 연구사

좌혜경\*

## 차례

1. 머리말
2. 1930~1950년대의 민요 연구
3. 1960~1970년대의 민요 연구
4. 1980년대의 민요 연구
5. 1990년대의 민요 연구
6. 민요 연구의 성과와 과제

## 1. 머리말

한국민요 연구사 고찰은 연구 기반과 연구사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연구사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앞으로의 연구 과제 혹은 현 연구의 위상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점이 연구사 검토의 의의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사 고찰은 자신의 논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혹은 연구의 범위에 따른 연구사적 정리가 개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한국민요 연구 전반을 통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구분을 해방 이전의 연구와 그 이후의 연구, 곧 전후기로 구분하여 살피는 경향도 있으나 여기서는 시대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평면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적으로 그 실상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해방 이전을 포함한 50년대 이전의 연구는 주로 초기의 연구물들이어서 논문이나 간단한 보고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의 집중적인 조사와 80년대 이후에 오면 단행본이거나 박사학위 연구처럼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도 전체적으로 크게 지역중심의 분류와 요종 중심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중심의 분류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들의 전승과 전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에 요종에 따른 유형별 분류는 민요의 일반적인 전승양상을 고찰하는 데 편리하다. 기존의 논의된 지역별 분류와 요종별 분류 결과들을 수집, 연구와 같이 고려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래서 수집과 분류, 연구를 중심으로 민요 연구사적 특성을 살피고, 연구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2. 1930~50년대의 민요 연구

초기의 민요수집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고(조선총독부 조사, 1933, 民謠調査) 특히 제주도 민요와 함경도 민요가 다카하시(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東洋學研究所, 1968. 좌혜경 편저, 『제주 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에 번역해서 실고 있음.)에 의해 수집되었으나 일부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일부 민족의식의 선각자들로부터 민요는 재인식되어 수집되었는데, 임화·이재욱(『朝鮮民謠選』, 京城:學藝社, 1939) 등의 노력이 현저하다.

근대에 와서 처음으로 민요 수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선 朝鮮의 童謠를 수집하여 편집한 이는 嚴弼鎭으로 『朝鮮童謠集』(彰文社, 1924)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동요라 할 수 없는 노래들도 수집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개화기 계몽의 대상으로 어린이나 아동교육을 위한 의식의 직접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록에 외국의 동요를 직접 번역하여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노래에 해설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자어로 표기해서 이해를 돕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어서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은 金素雲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大韓每日新報 기자로 있으면서 독자들을 통해 자료를 간접으로 입수하였다. 우선 그는 일본 泰文館에서 『朝鮮民謠集』(東京:泰文館, 일문, 1929)을 내었다. 이어서 4년 후에 이 책을 바탕으로 孫晉泰와 田中初夫의 자료를 합쳐서 다시 일본에서 한글판 『諺文朝鮮口傳民謠集』(東京:第一書房, 1933)을 만들었다. 그 해 이 책을 바탕으로 岩波文庫에서 일본어판 『朝鮮民謠選』과 『朝鮮童謠選』을 간행하고, 또 조선에 들어와 1940년 『口傳童謠選』·『口傳民謠選』(京城:博文書館)을, 1941년에는 다시 東京 新潮社에서 『朝鮮民謠集』 일문 문고본을 내기에 이른다. 특히 『구전동요선』(박문서관, 1940)은 동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동요 분류기준의 틀을 만들기도 했다.

이 시기는 시인들의 민요시 운동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민요조사와 함께 우리 민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라 할 것이다. 민요 연구서로 市山盛雄편, 『조선민요의 연구』(東京:坂本書店, 1927)가 있다. 여기에 원고를 실은 조선사람으로는 최남선, 이광수, 이은상이 있고 일본인들이 조선민요에 관심을 가지고 14편의 논평적인 글을 모두 일본어로 썼다. 이외에도 李在郁, 高橋亨, 崔榮翰, 宋錫夏의 글들이 눈에 띈다.

40년대 업적으로는 周王山의 사회현상에 따른 민요해석(『朝鮮民謠概論』, 프린트본, 중앙중학교, 1947)과 더불어 고위민의 민요 분류와 高晶玉의 연구를 획기적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고위민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분류, 연구하였다. 高渭民은 “朝鮮民謠의 分類”(『春秋』, 1941)에서 민요분류 기준의 기초적 틀을 마련했다. 우선 남요, 동남동녀요, 부요, 동녀요로 창자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고 또 부차적인 분류로 기능성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결과에서 중복이 나타나는 점과 객관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인 분류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高晶玉의 『朝鮮民謠研究』(서울:首善社, 1949)에 와서 다소 수정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거의 유사

하다.

『朝鮮民謠研究』는 민요를 조선문학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문학으로서의 민요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요의 개념, 형식과 기능, 발전, 그 특질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민요개론서로 가치를 지닌다.

이외에도 자료집으로 김사엽·최상수·방종현에 의해 나온 『朝鮮民謠集成』(서울:정음사, 1948)은 요종별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장사훈·성경린의 『조선의 민요』(국제음악문화사, 1949)는 지역별로 분류되어 정리되고 있다.

그런데 50년대에는 특별한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

### 3. 1960~70년대의 민요 연구

고정옥의 민요연구에 이어 특히 任東權은 민요 수집을 위해 전 지역을 누비며 지대한 업적을 이룩하여 민요수집(『한국민요집 1~7』, 집문당, 1961~1992)과 연구(『韓國民謠研究』, 선명문화사, 1974)의 금자탑을 이루었고 민요적 성격을 띤 사실시조와 내방가사, 속요들을 포용하여 민요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한편 한국민요의 사적계보를 추적하여 문헌 속에 산재해있는 민요를 발굴하여 민요사(任東權, 『韓國民謠史』, 문창사, 1964)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민요연구 방법, 한국민요의 특질을 규명하였으며 수집 경험을 바탕으로 민요를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을 ①창자의 연령과 성별, ② 주제 및 내용, ③ 가창과정 중심의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능과 창자, 내용의 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기능에 따라 노동요, 신앙성요, 만가, 유희요를 설정하고, 부차적으로 성의 구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래의 비기능성을 인식해서 내방요와 정연요를 설정했고, 아이들의 노래인 동요를 어른의 노래와 구분해서 분류했다(任東權, 『한국민요집1』, 동국문화사, 1961).

노동기능에 따른 농요 수집처럼 하나의 기능에 역점을 둔 집중적인 조사와 국한된 지역위주의 조사로서 진성기(『제주도민요 1~3』, 프린트본, 1958), 김영돈(『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등의 작업은 민요자료를 통한 기능별, 지역별 연구의 물꼬를 터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는 제주도 민요를 전도 일원에 걸쳐서 수집하고 분류하여 제주도 민요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으며, 후자의 장점은 방언의 특수성에서 오는 이해의 난점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래 전체를 표준어화한 語釋을 原노래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곧 표준어로 옮기면서 어휘와 구절을 모두 대역한 것이다.

조동일은 영남지방의 서사민요를 수집하여 장르론적 특성과, 문체, 유형, 전승론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서 민요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특수 장르의 이론이 일반론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趙東一, 『絃事民謠研究』, 계명대학교출판부, 1970). 또 김선풍은 한국의 시가를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그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한국시가의 민속학적 연구』, 형설출판사, 1977). 장덕순·조동일 외의 『口碑文學概說』(一潮閣, 1971)은 민요 분류가 여러 분류 기준을 위한 관점 설정에 그쳤던 이전의 논의를 직접 자료를 대입하여 분류해보고 諸 관점 중 기능위주의 분류를 강조한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 1980년대의 민요 연구

1980년대에 들어 민요수집은 상당히 현대화되어서 연구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지역별·요종별로 집중적인 수집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현장론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조사를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설화, 민요, 무가 등 구비문학 전반에 걸쳐 조사하면서 각 자료의 구연동기와 구연상황을 설명하고 조사자의 의견이나 분위기 등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전부 82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묶여져 나온 『한국구비문학대계』(1980~1988)의 민요자

료들은 지역별로 분류하여 한국민요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음악적인 자료 채보와 함께 이루어진 브리태니커사의 『팔도소리1~3』(서울:뿌리깊은나무사, 1989)가 있다.

개인적인 작업으로 김순재의 『한국의 뱃노래』(호악사, 1982)는 한국의 뱃노래 중에서 닳올리는 노래, 노젓는 노래, 그물당기는 노래, 고기 푸는 노래, 고기터는 노래, 풍어놀이노래, 한강시선뱃노래 등 155곡을 정선하여 음악적 요소인 교창형식, 음계구성, 리듬의 소재 등을 채록 분석하였다. 이소라는 『한국의 농요』1~5(현암사, 민속원, 1985~1992)에서 농요, 곧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벼베는 소리, 소모는 소리, 나무꾼 소리, 밭매는 소리 등 농사와 관련된 노래를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채보, 가사채록을 하였다.

이 시기는 분류에 있어서도 많은 학문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김무현(『한국민요 문학론』, 집문당, 1987)은 기능 중심의 분류를 제1단계의 분류로 삼고, 민요의 기능성을 ① 노동, ② 유희, ③ 의식, ④ 정치민요로 나누어 상세한 분류를 하였다. 분류된 자료만을 참고하더라도 민요의 위상과 그 특성을 가늠할 만하다. 그런데 정치민요 설정의 문제점인데, 과연 정치민요로 분류된 민요들이 얼마나한 정치적 목적성이 있는 가라는 점이 의문시된다. 대부분 분류된 민요들인 경우 이념표출이 없으며, 구전 당시의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다소 현실인식이 강한 노래들을 ‘정치요’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정치기능에 속한 노래들은 노동이나 유희기능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80년대는 임동권, 김영돈, 정동화, 김열규, 김대행, 류종목, 박준규, 김연갑, 최철, 김무현, 강동학 등 민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이다. 한국민요의 일반론을 전개한 任東權(『韓國의民謠』, 일지사, 1980)과 鄭東華(『한국민요의 사적 연구』, 일조각, 1981), 김무현(『한국 민요 문학론』, 집문당, 1987) 등은 민요의 형식적, 내용적 특질과 발달, 변천, 역사성 등 한국민요의 정체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특히 창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임동권은 한국의 婦謠

를 연구했고(『韓國婦謠研究』, 집문당, 1982. 『여성과 민요』, 집문당, 1984), 金榮敎은 제주도 여성들이 부르는 노동요를 살폈다(“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3).

金大幸은 한국민요를 바탕으로 시가의 구조적 성격을(『韓國詩의 傳統研究』, 개문사, 1980), 김무헌은 노동요를 문학사회학적인 입장(『한국 노동민요론—문학 사회학적 해석』, 집문당, 1986)에서 논의를 전개시켰다.

이 시기의 특징은 요종 중심 혹은 지역 중심의 개별 논의 전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논의 중에서도 金烈圭(『아리랑—역사여, 겨레여, 소리여』, 조선일보사, 1987), 김연갑(『아리랑』, 現代文藝社, 1986), 朴敏一(『韓國 아리랑文學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1989), 姜騰鶴(『旌善아리리의 연구』, 집문당, 1988)의 연구 등 아리랑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朴俊圭(“韓國歲時歌謠의 研究”,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83), 柳鐘穆(『韓國民間儀式謠研究』, 집문당, 1987), 張正龍(“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의 研究, 중앙대박사학위 논문, 1988)은 세시풍속과 관련된 의식요를 고찰했으며, 張瑄鎭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민요의 가족의식을 고찰했다(“韓國民謠에 나타난 家族意識研究”, 동아대, 1988). 최철을 중심으로 한 연세대 대학원생들의 민요론(최철편, 『한국민요론』, 집문당, 1986)이 출간되고, 민요학회(『민요론집』, 창간호, 1988)와 한국민요학회의 활동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 5. 1990년대의 민요 연구

한국민요학회(『한국민요학』, 제1~5집, 1991~1999)와 민요학회 회원들이 활동이 지속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민요학회, 『민요론집』, 제1~5호, 민속원, 1992~1998),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요 현장성의 소멸을 아쉬워하며 과거에 수집된 자료와 보충된 자료들을 덧붙여 자

료집 발간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울산·울주지방의 민요자료를 중심으로 5차년도에 걸쳐서 이룩한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의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울산대출판부, 1990)과 문화방송이 전국의 민요를 조사 발굴 녹음한 『한국민요대전』은 제주도편(1992)을 시작으로 사라져 가는 CD 음반과 구전문요 사설, 악보집이 담긴 해설집을 냈다.

김영돈은 『제주의 민요』(제주도청, 1993)에서 제주도 민요를 총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주민요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임석재가 1960년대 녹음한 민요 가운데 아끼는 노래를 음반과 더불어 사설집으로 후학들이 정리하였다(임석재 채록, 『韓國口演民謠』, 서울음반, 1993). 30년 전의 수집이지만 현장성을 고려하여 구연상황과 음곡과 사설이 같이 수집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의 민요의 연구 역시 개별론적인 연구가 진전되고 장르의 특성에 따른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申贊均은 만가(『韓國의 輓歌』, 삼성출판사, 1990), 李昌植은 유희요(“韓國遊戲民謠 研究”, 동국대, 1991), 김봉우는 경남지역의 칭칭이소리(김봉우, 『경남지역의 칭칭이소리연구』, 집문당, 1994)를 각각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시켜 그 정체를 밝혔으며, 羅承晩은 전남지역의 들노동요를 중심으로 벼농사 노동요의 특성을 논했다(“全南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0).

高惠卿은 농업노동요 사설의 시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언술의 구조적 측면을 연구했다(“傳統民謠辭說의 詩的 性格研究—農業勞動謠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左惠景은 “韓國民謠의 辭說構造 研究”(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2)를 바탕으로 『民謠詩學研究』(국학자료원, 1996)에서 한국의 민요 사설을 중심으로 시학적인 체계를 세우려는 시도를 했으며 한채영의 논문에서는 사설구성 방식과 결속구조를 찾으려고 했다(한채영, “구비시가의 構造研究”, 부산대, 1992).

李鉉守(“韓國婦謠에 나타난 意識研究”, 동국대, 1990)나 손종흠의 민요에 나타난 意識研究(“민요에 반영된 삶의 의식 연구”, 연세대 박사학

위논문, 1993)도 연구의 진척결과라 할 것이다. 또 최철의 『한국민요학』(서울:연세대출판부, 1992)은 저자의 민요에 대한 열성을 엿볼 수 있는 저서이기도 하다. 동요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좌혜경은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요자료를 수집해서 개관하고(『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전원범은 한국의 동요를 정리하였다(『한국전래동요연구』(광주:바들산, 1995). 이외에도 가장 가까운 시기의 민요연구서로 지속적으로 민요를 연구해 온 강동학의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집문당, 1996)이 있다.

90년대의 장르론적인 관심과 더불어 시학적 방법론의 모색, 민요의 의식추출, 요종별, 지역적 특성연구 등 깊이있는 천착이 이루어졌으나 한국민요의 학적인 체계구축은 아직 아득하다.

## 6. 민요 연구 성과와 과제

민요연구의 성과는 현장론적인 방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유형, 혹은 지역별 자료수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한국구비문학대계』나 MBC의 『한국민요대전』은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분류 역시 기능별 지역별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기능과 음악, 사설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져서 민요의 존재양상을 거의 보여주고 있다.

요종과 지역에 따른 민요연구가 깊이있게 정리되고 연구되었으며, 민요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사고와 의식 추출 역시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사설을 중심으로 한 민요의 시학적 측면의 연구가 90년대에 들어와서 몇몇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아직은 시론적 단계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테마와 구조, 전달, 기능을 고려하여 사설중심의 연구가 되어왔다고 할 것이다.

이제 연구에 있어서 현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구연현장의 변화로 사실상 현장론적인 연구가 한계에 왔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한국민요 연구의 과제를 항목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분류 정리, 보존의 차원

㉠ 한국민요 CD롬 제작

- 한국민요 사설을 입력-유형별 분류 및 해제
- 음악적 측면으로 가창 되고 있는 노래입력
- 한국민요사, 연구목록, 가창자, 창자의 일대기 입력
- 노동, 의식, 유희의 기능과 연행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 CD제작

㉡ 민요사전 (encyclopedia)제작

㉢ 민요의 모티브 인덱스(motif- index of Folksongs) 제작

2) 텍스트의 주제론(thematics)

㉠ 주제의 다양성(varieties)과 인식론적 접근—지속적, 유사적, 무  
임의적인 주제

㉡ 컨텍스트(context)의 경험과 청자의 해석 등 현장 수용론적 연구

㉢ 사설(문학)과 생(life)의 경계(boundaries)

3) 텍스트와 구비전통, 구비전통(Oral Tradition)의 파편추출을 위한  
방법론

㉠ 의미론적 정신분석적인 조사

㉡ 문법적인 영역에서의 시적 구조

㉢ 민요의 Sign과 Subject

㉣ 민요의 전통과 관습

4) 텍스트와 유형론

㉠ 민요와 유형들(modes)—전형(typical) 찾기, 변형(transformation)

찾기

- ㉠ 외국의 민요와 유형 비교
- ㉡ 구연체와 이미지, 모델의 발견
- ㉢ 한국고전시가 및 기록문학과 구비문학과와의 사이
- ㉣ 문체(style)의 발견 및 formula 구성

5) 텍스트와 이본, 구비전승론

- ㉠ 구비전통 지속의 가능성을 위한 통제성의 요인
- ㉡ 성(gender)에 따른 장르(genre)
- ㉢ 역사와 문화적인 관념
- ㉣ 텍스트의 비교(free, fixed)
- ㉤ 조사자와 채보자와의 거리
- ㉥ 기억의 실패로 나타나는 요인
- ㉦ 구비전통의 한계 및 텍스트의 재발견, 재생산의 이미지
- ㉧ 스토리와 구연, 개인의 생애력

6) 기타

- ㉠ 민요단어와 음악적 융합
- ㉡ 재조명한 민요장르의 성격
- ㉢ 민요의 時·空
- ㉣ 민요의 aspects
- ㉤ 민요창자의 유형
- ㉥ 창자와 청중과 기능에 따른 연행(performance)의 의미